

‘실패학’ DB 구축하고 ‘수익 창출’ 해라

버블붕괴 이후 한동안 침체에 있었던 벤처들이 최근 실적 호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벤처생태계의 회복을 낙관하기는 무리다. 벤처생태계의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내 벤처생태계의 복원은 관련 업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중장기적 과제이다.

벤처버블이 꺼진 후 투자자의 신뢰상실과 자금난으로 벤처생태계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큰 타격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했던 벤처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벤처 중주국인 미국에서부터이다. 나스닥의 완만한 반등과 대표적인 닷컴기업들의 실적 호전은 다른 국가들에게 벤처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을 불어일으켰다.

최근들어 국내 벤처에도 이같은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재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2001년 이후 벤처기업의 부실화와 자금난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벤처비리로 인해 신뢰를 잃은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들의 최근 실적 호전은 벤처경기 회복이라기보다 코스닥의 버블이 꺼지고 벤처들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미국과 같은 벤처회복을 가능케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벤처생태계가 복원되려면 무엇보다도 실력 있는 벤처들이 다수 등장해야 하며 벤처를 지원하는 자금·기술·시장 등의 경영환경이 건전해져야 한다. 벤처업계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지난날 실패를 거울 삼아 그에 따른 벤처생태계 복원방안을 도출해보자.

벤처 점차 회복돼

우리나라의 벤처확인 기업수는 2001년 이후 감소했다가 지난 2003년 이후부터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벤처의 폐업건수도 증가했다. 또, 코스닥 퇴출 벤처의 비중이 급증해 신규등록 벤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집계되었다(자료: 코스닥 증권시장). 신설법인 수는 2000년 4만1460개에서 2003년 3만3497개로 감소되었다.

이렇게 전반적인 창업활동은 2000년을 정점으로 여전히 위축되고 있으나 벤처 실적은 최근 호전되고 있다. 벤처확인 기업들의 2003년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해 다소 상승했다. 코스닥 벤처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1.7%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0%, 자기자본이익률(ROE)은 3.8% 높아졌다. 특히 인터넷, LCD, 반도체, 휴대폰 관련 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업종간 이익의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외부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벤처의 비중이 급감하고, 주요 조달원이었던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었다. 이러한 벤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벤처가 체감하는 자금난은 여전히 심각하다. 중소기업청 조사에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응답한 벤처의 비중이 2000년 35.0%에서 2003년 50.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버블붕괴 이후 신규 대표벤처 부상

벤처버블 붕괴 이후 대표 벤처기업이 생존 대응해온 성장유형을 각각 지속성장, 위기극복, 신규부상, 실적급락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실적 호조를 보여온 벤처기업으로는 엔씨소프트, 모아텍, 화인텍이 있다. 장기간 기술에 투자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독보적인 시장 우위를 확보한 벤처들이다. 특히, 부품제조 벤처의 경우 국산화를 통해 초기에 우량 기업고객을 선점한 것이 지속성장을 가능케 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회복한 터보테크, 다음, 안철수연구소는 위기극복형이다. 이들은 IT불황과 버블붕괴 등의 영향으로 2001년,



벤처생태계가 복원되려면 무엇보다도 실력 있는 벤처들이 다수 등장해야 하며
벤처를 지원하는 자금·기술·시장 등의 경영환경이 건전해져야 한다.

2002년에 걸쳐 실적이 악화되었다가 사업전환, 구조조정, 내실경영 강화 등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

라인콤, 엠텍비전, NHN은 2000년 이후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들로 2003년에 순이익이 상위에 랭크되는 등 신규부상 벤처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및 신서비스 출시를 통해 기존 업체와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 자사만의 강점을 살려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

반대로 버블붕괴 이후 실적이 급격히 하락해 부도를 맞거나 아직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벤처들도 있다. 메디슨, 세원텔레콤, 골드뱅크(코리아텐더)가 그런 경우이다. 이들의 패인은 적절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했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의사결정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M&A나 출자를 통해 구축한 기업 네트워크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경영 능력이 다소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버블붕괴 이후 가장 혹독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벤처생태계 복원 핵심은 '수익창출'

여전히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벤처생태계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무엇보다 벤처의 수익창출이 핵심이다. 벤처침체는 기본적으로 사업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벤처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분위기가 되살아난다. 우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성공사례 창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사업·기술 매각을 통해 유무형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둘째, 실패경험을 자산 삼아 벤처실패학 DB를 구축해야 한다.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확보해 적합한 기술가치평가를 함은 물론 업계는 윤리 경영과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정부는 감시체계를 구축해 벤처비리 제발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모두 이제는 벤처의 양적 팽창정책을 지양하고 기술혁신 지원, 자본시장 인프라 확충 등으로 벤처 재도약을 위한 기초 토양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간의 벤처실패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기업과 정책 당국이 앞으로의 벤처 운영에 활용하는 한편, 동시에 실패 경험자들에게는

재기 기회를 부여해주어야 한다. 과거의 많은 닷컴기업들의 실패가 있었기에 최근 인터넷분야에서 우량 벤처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90년대 말 벤처붐을 가능하게 했던 IT인프라 기반 및 문화적 역동성 등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것이다.

셋째, 벤처 부활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것은 역시 기술력 강화이다. 새로운 기술 개발보다는 주력해야 할 기술분야를 선택하여 육성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도 통용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초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방·의료·환경 등 공공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이들 분야의 벤처를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첨단 기술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정부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

넷째, 대기업은 벤처를 성장 파트너로서, 벤처는 대기업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협력 파트너로서 대기업과 벤처간의 상생을 모색한다. 대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해외판매망과 시장정보를 벤처에게 제공하거나, 보유현금을 유망 벤처에 투자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할 수도 있다. 벤처에게 적정이익을 보장해주고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방법도 있다. 벤처는 미래상품 개발에 착수하기에 앞서 대기업의 의견을 듣거나 대기업과 공동으로 상품화를 추진, 또는 보유기술을 매각할 수도 있다. 벤처와 대기업간의 협력을 위한 기반 환경 조성 위해서 정부의 참여도 필요하다. 공정거래의 틀을 정비하여 갈등 소지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이 사내벤처 분사, 기존 벤처 지분참여 등에 나설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의 제한을 완화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벤처생태계의 질적인 도약을 유도한다. 우선 벤처가 속해 있는 혁신클러스터를 고도화하기 위해 벤처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과 세금을 경감해주어야 한다. 법률자문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기관을 중점 육성하여 클러스터내 지식교류와 노하우 축적이 원활하도록 관련 기구를 통폐합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벤처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벤처의 '인재공급 저수지'로 활용하며, 대학은 벤처를 실무교육과 졸업생 취업의 창구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자료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벤처생태계 복원의 조건》